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PGA투어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최종 라운드 17번홀에서 김시우가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김시우 3년8개월 만에 '우승 포효'

PG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최종라운드서 8언더파 맹타 1타차 짜릿한 우승...통산 3승 4월 마스터즈 출전권도 획득

김시우(26)가 3년 8개월의 공백을 깨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김시우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파72)에서 열린 PGA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67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를 몰아쳐 4라운드 합계 23언더파 265타로 우승했다. 패트릭 캔틀레이(미국)의 추격을 1타 차로 따돌린 김시우는 PGA투어 통산 3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20만6000 달러(약 13억2731만원). 페덱스 랭킹은 9위로 올라섰고, 상금랭킹도 13위(170만 달러)로 도약했다. 김시우는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제패 이후 탄력을 받지 못했다. 3년 8개월 동안 준우승 한번, 3위 두 번에 그쳤다. 고질적인 등 부상에 두어차례 우승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며 자신감도 잃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돌아온 김시우는 오랜 우승 갈증을



씻어내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이날 우승으로 2023년까지 투어 카드를 보장받은 김시우에게 특히 반가운 선물은 오는 4월 마스터즈 출전권이다. 김시우는 2017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손에 넣었던 3년짜리 마스터즈 출전권이 지난해 만료됐기 때문이다. PGA 챔피언십 출전권도 확정했다. 토니 피나우(미국), 맥스 호마(이상 미국)와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시우는 8번 홀까지 버디 4개를 뽑아내며 순항했다. 1, 2번 홀 버디로 먼저 2타 앞서 나간 피나우는 4, 5번 홀 연속 버디로 가뭄에 따라잡고 7, 8번 홀 연속 버디로 앞질렀다. 10번 홀(파4)과 11번 홀(파5)에서 또 한 번 연속 버디를 뽑아내며 선두를 지키는 견고한 플레이

를 이어간 김시우는 그러나 캔틀레이의 거센 추격을 받았다. 9번 홀까지 6타를 줄여 우승 경쟁에 뛰어들어 캔틀레이는 후반에도 버디 사냥을 이어가 1타차 단독 선두, 공동 선두, 1타차 2위를 오가며 김시우를 몰고 늘어졌다. 18번 홀(파4)에서도 까다로운 내리막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보기 없이 버디만 무려 11개를 쓸어 담은 캔틀레이는 김시우에 1차 앞선 채 먼저 경기를 끝냈다. 김시우는 16번홀(파5)에서 승부를 걸었다. 299야드를 날린 티샷이 페어웨이에 안착하자 267야드를 남기고 5번 우드로 그린을 곧바로 공략했다. 볼은 아슬아슬하게 그린 왼쪽에 버틴 깊은 병커를 피해 그린에 안착했다. 김시우는 두번의 퍼트로 버디를 뽑아내 공동 선두에 복귀했다. 김시우는 이어진 17번 홀(파3)에서 6m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리며 1타차 선두로 올라섰다. 8언더파를 친 캐머런 데이비스(호주)가 3타 3위(20언더파 268타)를 차지했다. 임성재(23)는 3타를 줄여 공동 13위(13언더파 275타)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4언더파 68타를 친 이경훈(30)은 공동 32위(10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전인지 부활샷...LPGA 개막전 4위

"다음 대회 기다려진다"

한동안 부진에 빠졌던 전인지(27)가 2021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에서 부활을 예고했다. 전인지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앤드 스포츠 클럽 올랜드(파71)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단독 4위를 차지했다. 전인지는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로 4타를 줄였다. 특히 15~17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라운드를 마쳤다. 최종합계는 17언더파 267타로 우승자 제시카 코르다(미국)와 7타 차다. 대니엘 강은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로 준우승했다. 4위는 2019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공동 4위) 이후 전인지의 최고 성적이다. 전인지는 1년 3개월 만에 톱4에 들었다. 전인지는 2015년 비회원원으로 출전한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LPGA 투어에 진출했다. 데뷔 시즌인 2016년에도 메이저대회 예비망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전인지는 신인상과 최저타수상(베어 트로피)을 휩쓸며 LPGA 투어의 대세로 떠올랐다.



25일 열린 LPGA 투어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 4라운드 4번 홀에서 전인지가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LPGA 투어의 올 시즌 개막전이다. 전인지는 첫 대회에서 단추를 잘 끼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런데 하지 못했던 경기 내용을 오래 간만에 나올 동안 플레이했던 것 같다"며 "그 점에 내겐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한 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인지는 그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세팅이 돼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한 주였기 때문에 벌써 다음 대회가 기다려진다"고 기대했다. 첫 대회에서 좋은 기운을 받은 전인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2주 자가격리 후 설 명절까지 지내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갈 계획이다. 따라서 전인지는 한 달 후에야 다음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그는 "그마음을 잘 간직해서 다음 대회까지 남은 4주 동안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인지는 "한국 집에 가면 내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게 제일 행복하다. 가면 바로 씻고 침대로 뛰어들 것 같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전남 스포츠인권센터 문 열었다

남약신도시 내 전남체육회관에 개소...지역 체육인 인권 보호



전남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인권센터가 25일 무안군 남약신도시 내 전남체육회관에서 문을 열었다. <사진> 이날 개소식에는 김재무 전남체육회 회장, 성평등위원회 양희숙 위원장, 전남도체육회 소속 선수 등이 참석했다. 전남체육회는 지난해 말부터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스포츠인권센터를 마련했다. 센터는 앞으로 전남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계의 비리 개선을 위해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추고 활동한다. 이날 전남체육회관 정문에는 인권 우편함도 함께 설치됐다. 지역 체육인의 스포츠(성)폭력 및 인권유린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원활한 상담과 신고 접수를 위해 마련했다. 김재무 회장은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체육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동현, FIS 레이스 알파인 남자 회전 우승

2위 그람샤머 0.46초 차 따돌려

정동현(33·하이원·사진)이 국제스키연맹(FIS) 레이스 알파인 남자 회전에서 우승했다. 정동현은 25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라이터알름에서 열린 2020-2021 FIS 레이스 알파인 남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37초 19위를 차지했다. 2위 마리오 그람샤머(오스트리아)의 1분 37초

65를 0.46초 차로 따돌렸다. FIS 레이스는 월드컵과 대륙컵 다음 가는 등급의 대회다. 정동현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FIS 레이스 대회 회전 경기 이후 약 13개월 만에 FIS 레이스 정상에 올랐다. 정동현은 2011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알파인 스키의 간판선수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울
2관	소울
3관	아이 엠 우먼, 제이티 크로이 윈더 우먼 1984
4관	소울
5관	소울, 런
6관	소울
9관	모추어리 컬렉션, 케넥트 빛의 이버자: 파이널 판타지 XIV
7관	씨네커플 소울, 도굴, 이웃사촌
8관	씨네커플 소울, 신과함께-인과연, 이웃사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페라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